

결혼 반지

유안나(영국 옥스퍼드)

결혼한지 두 달이면 아직은 신혼일 때. 며칠동안 기도원에 다녀온 남편이 느닷없이 “여보, 우리가 가진 것중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 어떨까?”

사실 값비싼 보석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지만 결혼의 의미를 간직한 것이었고, 보석 중 으뜸이라는 다이아몬드여서 그런지 선뜻 내놓기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괜찮겠어?” 나는 남편이 왜 그런 소원을 갖게 되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때론 사랑하는 분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다.

“다음주에 특별순서가 있으니 그때 현금하기로 해요.”

결혼의 의미만 있으면 됐지 장롱 깊숙이 반지를 넣어 두면 무슨 소용이람 하고 나는 생각했다. 중요한 건 보석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

그런데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교회 갔다가 저녁예배까지 드리고 왔는데 방안은 한마디로 난장판 이었다. 주인이 없는 것을 알고 마음대로 뒤진 누군가의 흔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순간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생각났다. 아직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패물들이 몽땅 없어졌다. 순간 한쪽 구석 작은 통에 현금하기로 한 그 다이아몬드 반지통이 보였다. 같이 놓여 있던 이천오백원짜리 가짜 반지는 없어지고 진짜 결혼반지는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하나님께서 도둑으로 하여금 다른 것을 가져가게 하시되 그 반지 하나만을 남겨 놓으심으로 우리 부부가 정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주일예배에 내 결혼 반지는 현금으로 드려졌다.

그리고 그로부터 칠년.

영국에서의 생활은 정신없이 흘러갔고 오랜만에 고국을 찾을 기회가 생겼다. “오늘 저희 집에서 저녁을 대접할게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김집사님이 전화를 하셨다.

한국방문을 축하한 한다는 뜻에서 자리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식사는 즐거웠다. 우린 이런저런 얘기로 웃음꽃을 피웠다. 식사가 끝나자 집사님은 조그만 선물을 내밀었다. 황송한 마음에 조심조심 포장을 뜯던 나는 그만 탄성을 지르고 말았다.

이럴 수가!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가 바친 결혼반지였다. 영문을 모른 채 얼굴이 상기된 나에게 (광고면 하단으로 계속)

교회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이천년 교회생활'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2권 35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0년 8월27일
☎269-8677/021-292-1639.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젊은이들에게>

종교생활로 인한 각종 제약이 싫습니다

Q)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교리에 얽매어 생활에 제약을 받고 사는 것 같아 답답해 보입니다. 내가 그런 재미없는 사람이 될까봐 교회에 안 다니고 있습니다.

A) 귀하의 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답답해 보인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귀하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게 보일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라는 건축물'을 자의 의지대로 지어갈 자유가 있지요. 일테면 만세반석 위에 영원히 아름다운 집으로 기억될 걸작의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언젠가 한 순간에 허물어져버릴 모래위의 집을 기분 내키는 대로 대충 지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한번뿐인 귀한 삶을 사는 동안 진리의 말씀을 얻어서 그에 따를 믿음 아래 일생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짓는다는 뜻입니다.

한 대의 기분에 의한 자유방임의 삶으로는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일구어 낼 수 없습니다. 젊은이 뿐 아니라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신앙이 없이는 자기의 인격적 완성을 도모해 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젊은이의 눈에 답답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관심 갖고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불변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어찌면 누구보다 열 배나 더 재미있는 진짜배기 삶을 사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보다 열 배나 더 트인 긴 안목으로 세상과 세상 이상의 것을 꿰뚫어 내다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노여움아래 우리는 세상에서의 재미나 자유는 한 순간에 불과하지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뜻대로 일궈나가는 저들의 삶은 젊은이보다 열 배는 더 성공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번 뿐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젠 진적으로 젊은이의 자유이자 책임입니다.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3 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51 (히 11장)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519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변지웅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가 10:46-52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눈뜬 마디베오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500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8, 9월 예배 위원>

일자	안내.헌금	기 도	teatime봉사
8월 27일	김효권.이영주	변 지 웅	정재정.한 건
9월 3	김시욱.장선주	송 정 섭	김수하.이상욱
10	이선우.조순정	김 교 섭	이영권.지윤수
17	지윤수.김 효	조 순 정	이경석.김시욱
24	김교섭.정희자	이 선 우	김성국.최윤호

'이천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사항> *개인과 가정:매일 1/2성경읽기, 가정예배 *교 회:화요새벽기도회 *선 교:결식아동 3배지원, 해외선교지원	<등록규정>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

주일예배 1:30 pm	수요예배 7:30pm(ST.Stephens)	화요새벽기도: 6:00
--------------	--------------------------	--------------

교 회 소 식

- 1.성경완독 1년계획
*새로운 봄을 맞아 앞으로 1년간 성경개인완독 1회를 위해 9월첫주부터 실행합니다.
- 2.청년기초성경공부
*금주 화요일부터(29일). *시간: 7:00pm *장소:교회(4회모임)
*대상: 청년중 금년도 등록자(이상욱.정재정.이미레.이성희.김수하)
- 3.“약속의 아비” 첫 모임(남성교우들만의 모임)-성경공부와 기도회
*일시: 9월 8일 금(매 첫주 금요일). 7:30pm *장소: Adria.
- 4.중고등부 모임시작
*다음주일부터 중고등부 모임을 아동부와 같은 시간에 모입니다
*교사:최유나 장소: 친교실 2층 room
- 5.다음주일은 ‘이삭줍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6. 3개교회 연합운동회-labour day(갈보리.임마누엘.주님의교회)
*일자: 10월 22일(주일).연합예배와 체육대회
*주변에 적당한 실내체육관이 있으면 말씀하여주십시오
- 7.9월의 교회력
*3일(주일) 이삭줍기 봉헌 *8월29일부터 매 화요일:청년기초성경공부
*4일(월)부터 성경완독 1년계획시작
*15(금) 장년부 기초성경공부
*8일(금).‘약속의 아비’ 첫모임
- 8.공통기도제목
1)학생부,청년부 조직위한 교사 위해
2)민지영 선교사,결식아동지원.
3)성경완독 1년계획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지난 7년동안 늘 마음이 찢찢했거든요. 이 반지가 헌금에서 나오자 재정위원들의 논란 끝에 귀한 헌금을 아무 가게나 파는 것보다 교인중 누가 구입해서 보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한참 망설이다가 우리가 샀어요. 얼마 후 자매님이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부터는 참 기분이 묘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유럽 여행 때 자매님 맥을 잠깐 방문하게 된 게 우연이 아니었던가봐요. 그때 비어있는 자매님의 손가락을 보는 순간 이걸 되돌려 주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안하네요.”